



# 蜂療와 蜂針療法에 관한 임상실험례및 연구논문選集<8>

高 相 基 / 韓國蜂針療法研究會 會長, 國際蜂療保健蜂針學術研究會 副會長

○(전호에 계속), 한국봉침요법연구회 제18회 연수회에서 발표된 것임.  
 ○발표=한국봉침요법연구회 이사 金榮根

### ▶임상에 4

▷모변호사댁 가족 임상

<임모(여), 59세, 변호사의 부인>

이 부인은 약 6년 전에 김장할 때 화장실 출입중에 넘어져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는데 그후부터 어지러움증이 생겨 누울 때나 차량운전 후 내릴 때에 어지러워 주위에 아무거나 붙들고 한참 쉬었다가 움직여야 했고 위를 쳐다보아도 어지러웠다고 한다. 또 일주일마다 정확하게 1번씩 위경련이 일어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간 백방으로 치료를 했는데 차도가 없었다며 봉침으로 나올수 있겠느냐고 묻기에 한번 치료해 보자며 치료를 시작했다.

● 치료혈=우선 건강증진 혈을 전신에 취혈하고 난 다음

• 어지러움증 치료혈로는 ①하과 ②현로 ③현리 ④협계 ⑤백회 ⑥신회 ⑦사신총 ⑧호구 ⑨낙관 ⑩뇌공 ⑪당양 ⑫어미

• 위경련 치료혈로는 ①4관혈 ②위유 ③위창 ④양구 ⑤기해 ⑥장문 ⑦천추 ⑧풍지 ⑨거혈 ⑩족삼리 ⑪은백 ⑫유문 ⑬의사 위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⑭흉추 제6, 7번 흉추.

위경련은 침치료 후 1주일 후부터 딱 멈추었고, 어지러움증은 처음에는 1주에 3회 3주부터는 1주에 2회, 5주부터는 1주에 1회로 치료했다. 현재는 위경련은 물론 어지러움증도 완치



고상기회장

되었다. 치료기간은 도합 3개월. 그간 백방으로 치료해도 차도가 없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살줄 알았는데 봉침으로 완치되었다고 고마워하며 5년이고 10년이고 건강침으로 계속 치료해달라고 하여 현재도 계속치료해주고 있다.

### ▶임상에 5

▷고모(여) 35세 변호사의 딸

병 증상은 눈이 충혈되고 고름이 나와서 항상 색안경을 쓰고 생활하는 실정이고 눈이 항상 토끼눈 같이 새빨강게 충혈이 되어있어 보기 흉하고 또 얼굴은 애기 때 갓 낳았을 때부터 얼굴 전체가 멍기어 크림을 발라도 멍기어 백방으로 치료를 했으나 성과가 없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가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임.

얼굴 멍기는 것과 눈치료는 어머니와 같이 1주에 3회 치료하고 3주 후부터는 1주에 2회 5주후부터는 1주1회로 치료, 5주 후부터는 눈에 고름도 멈추고 눈에 충혈도 말끔히 치료되었음.

● 치료혈=치료방법은 우선 전신에 건강증진혈을 취하고

• 눈병에는 ①뇌호 ②동자료 ③정명 ④어요 ⑤목창 ⑥건명혈 ⑦삼산 ⑧각손 ⑨간유 ⑩광명 ⑪상성 ⑫수죽공 ⑬목창 ⑭노식 ⑮사백 안구 주위를 산자로서 골고루 자침해주고

• 얼굴 멍기는 데는 눈치료 할 때마다 얼굴 전체에 골고루 산자로 치료해 주었던니 그 무섭게 멍기는 증상이 해소되어 너무 기쁘다고 하며 미국 유학가서도 치료효과를 못 보았는데 봉침 맞고 나왔다고 기뻐하며 어머니 따라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임상에 6

▷증상은 무정자증(백모 41세, 서울 모대학 교수)

결혼한지 수년이 지나도 애기가 없어 미국에 유학갔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무정자증으로 진단이 나와서 애기 갖기를 포기하고 지냈음. 처가집에서 장모와 부인이 봉침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사위인 교수에게도 봉침 치료를 받기를 권고받고 처음엔 건강증진 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중에 한국에 귀국해서도 세브란스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은 결과 무정자증으로 진단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고향에서 대부분의 정자를 생성을 한다는 것을 착안하여 봉침으로 정자 생성을 시켜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교수에게 제의를 하니까 승낙을 하기에 우선 먼저 건강증진 혈을 취하고 타원형인 고향 두 개에 처음에는 발침하여 살짝살짝 가볍게 자침하고 1주에 3회 2주 후부터는 1주에 2회로 짧게 자침법을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몹시 통증을 느꼈다.

4개월 치료후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했던 바 정자도 건강하고 정자수도 80% 회복되었다며 기적이라고 의사가 말했다고 한다. 그래도 자존심 때문인지 벌침치료를 받았다는 말은 안했다고 한다. 무정자증 외에도 발기부전증도 있어 인공수정을 2회에 걸쳐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어 봉침으로 치료해 보기로 했다.

● 치료혈= ①명문 ②신유 ③지실 ④관원 ⑤중국 ⑥곡골 ⑦기해 ⑧삼음교 ⑨여구 ⑩제3요추 ⑪차료 ⑫회음 그 밖에도 음경에 추가로 취혈했음.

상기한 혈은 취혈하며 주 2회로 3개월간 치료했던 바 발기가 정상으로 돌아와 현재는 2일에 한번 꼴로 부부관계를 가지며 정상 임신을 하기 위해 현재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 8. 만성관절류마티스염의 봉침치료 임상시험

- 본문은 第4回 國際蜂療保健蜂針療法學術硏究會 東京大會에서 發表한 것임.
- 발표=李万瑤, 鄧金峰, 賴先娥 教授(中國廣州中醫學大學 蜂針室)
- 번역=朴南哲(中國 吉林省 連吉市)

우리 병원의 외래환자 중에서 53례를 선택하여 임상실험을 실시하였다. 53례의 환자 중 여자 45례, 남자 8례였는데, 시험방법은 53례의 환자 중에서 봉침치료 群 33례, 서양의약인 소염진통제 “인트메다신”을 사용한 치료군 20례의 2群으로 나누었다. 나이는 29~63세이며, 그 중에서 봉침치료군은 평균 46±10.6세였고 서양의약군은 평균 47±9.1세였다. 病歷은 2개월에서 최장 20년까지 있었다. 연구관찰 내용은 만성관절류마티스염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하여 치료전후의 관절기능, 아침의 握力, 20m 보행시간 등을 指標로 해서 관찰했다. 여기 더해서 通常의 혈액검사로써 류마티因子, 抗連鎖球菌溶解素O 테스트, 血沈, 혈청면역구담백 등의 검사를 진행하였고, X線검사를 병행한 경우도 있었다.

치료를 시작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 재검사를 하였다. 봉침치료는 피부검사와 봉독에 대한 저항력을 검사한 후 阿是穴과 經穴을 혼합하여 산 벌로 直刺法으로 施術하였다. 처음에는 벌 한 마리부터 시작하여 매일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평균 1사람에게 10~18마리까지 증가시켰다. 시술간격은 매일 또는 2일에 1회로 하고 매주 2일은 휴식하였다.

봉침치료군에서는 임상완치 4례(12.1%), 현저한 효과 9례(27.3%), 유효 18례(54.5%), 무효 2례(6.1%)였으며 총유효율 93.9%였다. 이에 비하여 서양의약사용군은 임상완치 1례(5.0%), 현저한 효과 3례(15.0%), 유효 10례(50.0%), 무효 6례(30.0%)였고, 따라서 총유효율은 70.0%였다. 따라서 봉침치료군의 치료효과는

서양의약사용군에 비하여 그 효과가 현저하게 높았다.

검사결과 류마티스 因子陰性化率は 봉침치료군에서 35%, 서양의약군에서 13%였다. 봉침치료 후의 血沈下降速度는 뚜렷하게 감소되어 평균 감소치는  $27.03 \pm 31.59$  p < 0.001이었고 헤모그로빈도 현저하게 상승하여 아침의 뻣뻣한 握力의 회복도 짧아지고 양손의 握力도 모두 뚜렷하게 좋아졌다. 그리고 20m 보행 속도도 빨라졌고 관절이 붓는 횟수도 감소되거나 심지어 붓는 것이 없어지고 모두 p < 0.05로 되었다. 봉침치료에 의해서 관절이 붓는 것이 호전됨에 따라 동통도 차차 없어지고 이와 동시에 관절운동 능력도 이에 비례하여 향상되었다.

치료전후 면역구단백 1gG · 1gA · 1gM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단지 1gE가 봉침치료후 뚜렷이 올라가 (p < 0.001)이었다. 봉침치료는 봉독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가지 성분에 의한 작용이 뚜렷한 바 봉독은 일종의 異性蛋白質이기 때문에 인체에 一連의 과민반응 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동시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봉침치료 후 1gE가 증가함에 따라 관절염의 모든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 양자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 9. 봉침요법과 봉산물과의 관계 및 효능의 활용

발표=高祥熏(韓國蜂針療法研究會 副會長, 高麗養蜂園 代表)

### 9-1. 서론

봉침요법이란 꿀벌 중에서 출방 10일 이후의 건강한 성봉(일벌)의 침을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주입(자침)할 때 이들 침에 의한 자극과 침액 즉, 봉독의 생약리작용(生藥理作用)에 의해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것을 말

한다. 봉침요법은 양봉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민간요법으로써 오랜 옛날부터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도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도 12월23일자 중앙일보 31면에 저명한 미국의학협회 잡지(JAMA)에 발표된 대체의학 특집호 내용을 소개하면서 현대의학은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재 민간요법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체의학 요법들이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대체의학 요법으로 꼽히고 있는 민간요법은 약 40여종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①수지침과 반사요법 ②봉침요법 ③심신요법 ④카이로 프락틱 ⑤자기요법 ⑥동종요법 ⑦장세척 ⑧단식 ⑨녹즙 등을 이용한 식이요법 등이 대표적인 대체의학 요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체의학 연구 학자들이 추산하는 민간요법 비용은 줄잡아 20조원으로 이것은 한의학을 포함해 공식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의료비와 맞먹는 액수라고 한다. 97년 국내에도 대체의학학회(회장 吳洪根)가 설립되어 있고 현재 회원은 약 170여명으로 이중 의학박사만 1백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요법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봉침요법이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과학적인 연구실험이 이루어져 검증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현대 양봉은 봉침술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양봉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봉침요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봉독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인체에 대한 임상실험도 확대되고 있다. 양봉인들과 봉침사들이 꿀벌을 이용한 봉료보전은 날로 확산되면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봉침을 배움에 있어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간단한 화농성 질환이나 타박상 또는 멍든데 혹은 심하지 않은 외상 등 봉침요법의 효능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질환도 많으나 인체의 질환은 그렇

게 간단하지마는 않다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한의학이나 의학공부를 하지 않은 우리들 양봉인으로서 완벽한 봉침기술을 발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도의 봉침기술은 원칙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많은 임상 실험과 한의학의 침구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완벽한 봉침기술을 습득하거나 활용하기란 한마디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부단한 노력과 연구와 많은 임상실험이 계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봉침요법은 엄격한 면에서 인체의 각종 질환을 치유시키는 의료수단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정부당국의 봉침요법의 자격허가를 받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단순한 봉침기술만을 익힌 상태에서 봉침요법시술 한 가지 목적만으로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치료비 수수료에 관계없이 제3자 또는 환자자신의 진정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봉침요법은 꿀벌을 관리하는 양봉인이 자신이 생산하는 봉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친지나 가까운 이웃의 건강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봉침기술이 숙달되고 많은 치료경험과 임상실험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초보적인 봉침기술로 함부로 환자를 시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완벽한 봉침기술의 습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려운 것이므로 전문적인 봉침시술사가 아닌 경우나 초보인 경우에는 봉침시술은 반드시 봉산물(벌꿀, 로얄젤리, 꽃가루, 프로폴리스)의 복용을 병행해서 하되 봉침시술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효과와 빠른 효능을 얻게 되고 더불어 환자의 체력을 보강시켜 줌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봉침요법과 봉산물의 복용은 불

가분의 절대적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봉산물의 복용을 병행하므로써 효능 증대와 봉침기술의 미숙함을 봉산물이 보완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봉산물 역시 무조건적인 복용보다는 환자의 상태나 체질 또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복용 양이나 복용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각종 봉산물과 봉독의 효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복용방법과 시술기술을 선택하여야 하며 봉침시술은 상황에 따라 주 수단 또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봉료보건요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9-2. 봉독 (蜂毒, Bee Venom)

출방 7일 미만의 유봉기의 꿀벌들은 봉독을 아주 조금 가지고 있지만 일령이 많아질수록 봉독 양이 많아진다. 약 15일 정도 된 꿀벌에는 보통 0.3mg의 봉독이 들어간다. 꿀벌들이 출방 후 약 3주정도(21일) 되면 봉독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독낭의 봉독 중량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일단 독낭의 독을 사용해 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채울 수가 없다.

봉독액은 맑고 투명한 액체로 강한 쓴 맛이 나는 방향성 물질이다. 봉독액의 비중은 1.1313이며 산도(PH)는 5.2~5.5 이며 봉독은 쉽게 물과 산에 용해되지만 알코올에는 거의 용해되지 않는다. 봉독액은 휘발성이 강해 상온에서 공기에 노출되면 빨리 말라버리므로서 액 중량의 약 70%를 손실하게 된다. 봉독은 열에 매우 강해 섭씨 100℃에서 아무리 끓여도 그 특성을 잃지 않는다. 또 냉동을 시켜도 성분을 파괴시키지 못한다. 건조된 봉독은 황갈색의 가루 모양이며 습기에 주의하면 수년동안 그 특성을 잃지 않는다. 봉독을 파괴시키는 물질로는 (알코올 (산화성 물질 (r)세균 ( 침샘 (위액 (장효소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에 쉽게 파괴된다. 이런 이유로 봉독을 경구로 복용하면 효과가 없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